

보도	2024.6.27.(목) 10:15	배포	2024.6.26.(수)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100)
		담당자	팀 장	이재훈 (02-3145-7107)
	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기술단	책임자	단 장	이성재 (061-820-0000)
		담당자	팀 장	지승구 (061-820-1106)

금융감독원 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
- 해킹 등 IT 기술이 결합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

I. 업무협약 개요

-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)과 '24.6.27.(목) 금융감독원 본원(서울 여의도)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함
-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, IT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,
-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 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(兩)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

※ 금감원-KISA 업무협약식(MOU) 개요

◆ 일시 : 2024. 6. 27. (목) 오전 10시 15분
◆ 장소 : 금융감독원 본원 11층
◆ 참석자 : 금융감독원 3명, 한국인터넷진흥원 4명 등 총 7명
[금융감독원] 이복현 원장, 김병철 전략·감독부문 부원장보, 가상자산조사국장
[한국인터넷진흥원] 이상중 원장, 오진영 정보보호산업본부장, 보안기술단장, 위협분석단장

II. MOU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

-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여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(이체)이 제한되었음에도
 -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등
 -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 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·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함

※ [참고] IT기술이 결합된 부정거래에 대한 분석 필요사례 (예시)

[예시①] (DDoS 공격 위장) 발행자(재단)가 보유 코인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고의적으로 DDoS 공격을 발생시켜 일반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한 경우, 실제 DDoS 공격이 네트워크에 발생되었는지 검증확인이 필요

[예시②] (백서와 다르게 운영) 백서에 기재된 코인 유통계획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에 네트워크를 임의 조작할수 있는 코드를 은닉하거나, 발행량 및 유통량을 임의 조정하는 경우 관련 디지털 정보를 분석할 필요
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,
 -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,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임
 - 더불어,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,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

Ⅲ. 기관별 발언요지

-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“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왔으나,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다.”라고 밝히면서,
 - “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.”고 말했음
 - 법 시행 후 “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”이라고 언급하였음
-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“최근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.”고 밝히면서,
 - “KISA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.”고 언급하면서
 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“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음

IV. 향후계획

-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T기술을 악용하여 점점 고도화, 지능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,
 -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임

※ [별첨]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